

산업브리프

Overweight
(Maintain)



은행 Analyst 김은갑

egab@kiwoom.com

RA 손예빈

yebin.son@kiwoom.com

은행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추진



위기상황 시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관련 감독규정 변경 예고. 2024년말부터 시행 계획. 0~2.5%p 범위에서 추가적인 자본적립 의무 부과. 은행지주 및 은행권의 높아진 자본비율 감안 시 큰 변화를 초래할 요인은 아닐 전망

>>>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예고

위기상황 시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과 관련하여 감독규정 변경이 예고됐다. 2023년 발표된 은행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의 일환으로 경기대응완충자본에 이어 추진되는 내용이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2023년 5월 1%가 부과되어 유지되고 있다.

>>> 최저자본비율 상향

스트레스완충자본은 위기상황과 보통주 자본비율 하락수준에 따라 0~2.5%p 범위에서 규제비율에 가산되는데, 경기대응완충자본과 마찬가지로 부과되더라도 1%p로 예상된다.

현재 D-SIB 은행의 경우 보통주 규제비율은 최저 4.5%에 자본보전완충자본 2.5%, 경기대응완충자본 1%, 금융체계상 중요 은행 D-SIB 1%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구성에 스트레스완충자본을 더하면 '9% + 스트레스완충자본'이 D-SIB 은행의 규제비율이 되며, D-SIB가 아닌 은행은 8% + 스트레스완충자본이 규제비율이 된다. 기업은행은 독자적인 자본확충이 어렵고,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가 있어 스트레스완충자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설립 이후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 은행주 자본비율 감안 시 큰 부담 없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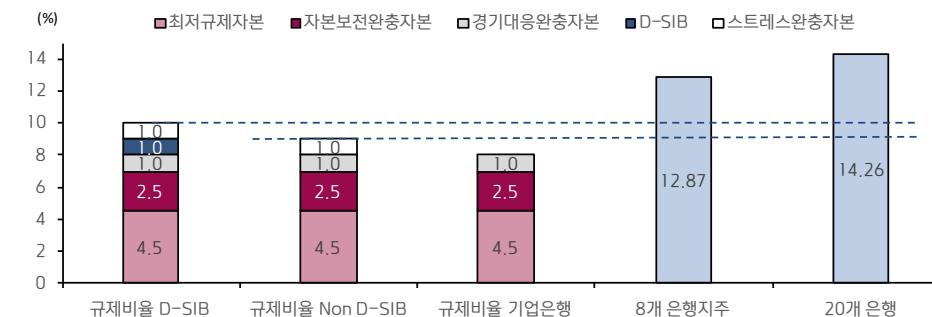
스트레스완충자본이 부과되어도 현재 은행주 자본비율 감안 시 큰 부담은 없을 전망이다. 6월말 은행지주 보통주 자본비율은 12.9%, 국내 20개 은행의 보통주 자본비율은 14.3%이다. 일정 수준 추가 자본부여 결정이 나더라도 일반적으로 1년의 자본적립 기간이 주어진다.

경기대응완충자본과 스트레스완충자본이 동시에 큰 폭으로 부여되는 상황에서는 은행에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경제위기로 스트레스완충자본 부여폭이 크게 확대되는 상황이면 신용공급 조절을 위한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점차 부여폭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9월 11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 중 '우리금융지주의'의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그 밖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은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증가율 추이



주: D-SIB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자료: 금융감독원,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4.6월말 보통주 비율

(단위 : %)

신한 지주	신한 은행	제주 은행	하나 지주	하나 은행	KB 지주	국민 은행	우리 지주	우리 은행	DGB 지주	아이엠 뱅크	BNK 지주	부산 은행	경남 은행	JB 지주	전북 은행	광주 은행	기업 은행
13.05	14.59	13.88	12.8	15.31	13.59	14.71	12.04	13.28	11.22	13.65	12.16	15.21	13.49	12.54	13.62	15.76	11.56

자료: 금융감독원,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투자의견 및 적용기준

기업	적용기준(6개월)
Buy(매수)	시장대비 +20% 이상 주가 상승 예상
Outperform(시장수익률 상회)	시장대비 +10~+20% 주가 상승 예상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시장대비 +10~-10% 주가 변동 예상
Underperform(시장수익률 하회)	시장대비 -10~-20% 주가 하락 예상
Sell(매도)	시장대비 -20% 이하 주가 하락 예상

업종	적용기준(6개월)
Overweight (비중확대)	시장대비 +10% 이상 초과수익 예상
Neutral (중립)	시장대비 +10~-10% 변동 예상
Underweight (비중축소)	시장대비 -10% 이상 초과하락 예상

투자등급 비율 통계 (2023/07/01~2024/06/30)

매수	중립	매도
94.71%	5.29%	0.00%